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10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 성과 및 과제



인터뷰 :

제8회 한·중·일 심포지엄



I/D/I/소/식



인천발전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어윤덕)은 기타큐슈시립대학(학장 야다 토시후미)과 ...

행/사/정/보



2009 APCS '창조적 도시개발'에 관한 플로리다와의 단박 대담
플로리다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도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Tec...

Zoom INcheon



생명이 솟구치는 섬-강화도
강화군은 한강하구에 위치한 유인도 9개와 무인도 17개로 이루어진 도서...

도시동향



IEEE ISCIT 2009 국제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인 IEEE의 International Symposium o...

IDI연구



제1회 교통 명품도시를 위한 국제 자전거 심포지엄
인천시는 제1회 자전거 엑스포 개최와 더불어 국내외 자전거 전문가를 초...

인천지표



외국인 관광객과의 만남
인천세계도시축전, 그 80일간의 화려한 축제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행사장...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의 성과 및 과제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관 곽하형

“창조적인 도시개발(Creative Urban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인천 국제도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Asia Pacific Cities Summit)가 아태지역 26개국 148개 도시대표와 학자, 청년대표, 도시개발전문가 및 비즈니스 리더 등 1,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대형악재에도 불구하고 인도 뉴델리, 일본 요코하마, 중국 천진, 미국 호놀룰루, 싱가포르, 베트남 호치민, 대만 타이페이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메이저급 도시대표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본 회의가 멤버십 회의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인천시의 발전과 미래비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빈틈없는 의전, 숙박, 수송대책과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전시관 운영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매끄럽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국내의 참가자들로부터 질과 양적인 면에서 최고의 국제회의라는 찬사를 받았다.

특히 현존하는 프랑스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와 도시창조이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도시가 갖추어야 할 비전을 제시하였다. 리처드는 미래의 경쟁력 있는 도시가 충족해야 할 4가지 요소로 “기술, 재능, 관용, 지역적 자산”을 언급하며, 창의적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시들은 창조적 여건을 마련하는 힘써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자크 아탈리는 미래에 성공하는 도시는 “자존감, 비전, 공감, 탄력성, 창조성, 편재성, 개혁” 등 7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과거 성공했던 도시들은 모두 항구 도시이거나 항구 근처에 있는 도시였고, 지금 전 세계가 송도의 프로젝트를 지켜보고 있다”며 송도의 발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인천 특별세션에서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정보통신기술과 자연환경이 융합하는 「콤팩트 스마트 시티(Compact Smart City)라는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천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하여 창조적인 도시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인천의 발전상과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해외 참가자들은 안 상수 시장이 제시한 구체적인 도시비전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인천이 얼마나 철저하고 짜임새 있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하에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다.

참가도시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회의 2일차에 발표된 인천공동선언은 아태도시들의 당면과제와 도시 간 상호협력방안을 공유하여, 참가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협력, 시민을 위한 평화와 안전의 보장, 교육환경 개선, 생태 친화적 개발, 이태 도시 간 인적자원과 기술교류, 재난의 공동대응, 경제협력모델 개발 등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아시아태평양 주요도시들은 이를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미래도시를 위해 생태 친화적 성장에 따른 인적 및 기술적 교류의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다.

지난 8월 7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세계도시축전이 세계 최초로 「도시」라는 테마를 가지고 열리는 이 때, 아태도시정상회의에 각 국 도시가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직접 인천을 방문했다는 것은 인천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그만큼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많은 참가도시들로부터 인천의 우수한 발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프라와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인천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인천은 60여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효과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능력향상, 국제도시 브랜드 제고 등 부가적 가치를 얻었으며,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의식의 함양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회의의 성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대최대규모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창조적인 도시개발의 리딩도시로서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아시안 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와 국제일자리 창출을 유인할 수 있고, 향후 G20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가 유치되어 세계인류 명품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참가도시들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야 하며, 아울러 인천공동선언을 우리시 도시개발의 정책기조로 삼아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또한 다른 경쟁도시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인천시가 '창조적 도시개발' 모델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창조적인 도시개발(Creative Urban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인천 국제도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Asia Pacific Cities Summit)가 아·태지역 26개국 148개 도시대표와 학자, 청년대표, 도시개발전문가 및 비즈니스 리더 등 1,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Interview CONFERENCE

제8회 한중일 심포지엄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한창인 송도 신도시에서 9월24일 오후 송도파크호텔에서 '한·중·일 도시 경쟁력 제고 방안'이란 주제 아래 '제8회 한중일 심포지엄'이 인천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본 심포지엄은 한중일 도시경쟁력 연구의 최고 권위자가 함께하는 자리로 한국에서는 IPS 국가경쟁력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조동성 교수를 비롯하여, '세계도시 경쟁력 보고'를 통해 세계 500대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니펑페이 박사, 모리기넨재단 도시전략연구소와 함께 '세계 도시 종합력' 연구를 진행하는 메이지대학의 이치카와 히로오 교수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현황과 전략적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 브랜드와 관련하여 국가브랜드위원회 기획위원인 김유경 한국외대 교수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 브랜드 관리의 전략적 과정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의 강승호 연구위원이 인천의 도시 경쟁력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한중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국과 중국의 발표자 세명의 인터뷰 내용이다.

■페이창홍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무역연구소 소장)



Q. 도시 경쟁력 연구를 주도하시면서 세계 여러 도시를 많이 다니신 걸로 압니다. 한국도 여러 번 방문하셨지만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처음이신데요, 다른 도시와 비교해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되었는지요.

먼저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도시계획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그리고 시장의 리더십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바이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여러 도시들이 개발계획을 세우고 인천의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개발구를 많이 세우고 있지만,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리더십 부재 또는 미비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시장의 강한 의지력과 치밀한 계획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 재생 사업들이 힘을 잃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가게 되면 인천의 이러한 도시개발 사례를 중국 각 도시의 리더들에게 알리고 인천을 벤치마킹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Q. 국제무역과 중국의 외자유치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와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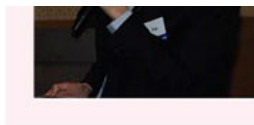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세계의 자본들이 국경을 초월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자가 잘 활용된다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또한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이 투기 자본으로 변질되지 않고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과 사업이 1대1로 매칭 되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펑페이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무역연구소 주임)



Q. 두 번째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하시는데요, 1년 동안 얼마나 변화했는지 느낀점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 10월에 인천에 다녀간 뒤 꼭 1년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도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둘러 보고 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많이 변해 있어서, 제가 왔던 그 곳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정말 발전 속도가 중국의 도시보다 빠른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도시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인천처럼 짧은 기간동안에 이러한 성과를 내는 도시는 없습니다. 속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면서 첨단 과학을 잘 활용한 도시 계획도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내년 6월에 중국 난징에서 세계 도시 연구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도시 경쟁력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때 인천도 참가해서 인천의 도시개발 사례를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 첨단 과학을 잘 활용한 도시 계획도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내년 6월에 중국 난징에서 세계 도시 연구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도시 경쟁력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때 인천도 참가해서 인천의 도시개발 사례를 발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진행 중인데요, 세계 도시를 연구하시는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가요.

물론 세계도시관입니다. 한 곳에서 세계 여러 도시를 돌아 보고 자료도 얻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세계 도시를 연구하고 있지만 모두 가보지는 못하거든요. 인천의 경우 제가 작년에 와 보지 못했다면 그냥 서울 옆에 있는 작은 소도시 정도로만 생각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라는 걸 아마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번 행사로 많은 외국인들이 저처럼 인천에 대해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도시경쟁력 연구에 있어 방대한 연구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니펑페이 교수는 중국 294개 도시들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니펑페이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상위 10위 안에 든 도시가 모두 동부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과 인접한 선전이 상하이와 베이징을 제치고 2위를 차지, 중국의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동남지역 도시가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환발해 지역 도시의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칭다오와 톈진이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부 내륙지역 도시들은 여전히 충칭(重慶)과 청두(成都)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위에도 들지 못했으며,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경쟁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치가와 히로오 (일본 메이지대학 공공행정대학원 원장)



Q. 먼저 도시종합력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종합력"은 모리기념재단에서 세계 30개 도시를 연구하여 매년 발표합니다. 도시 종합력은 글로벌화 속에서 세계적인 도시간 경쟁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본과 기업, 유능한 인재, 방문객 등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도시가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지 도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작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미쓰비시 종합연구소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연구결과는 10월 말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Q. 인천은 수도 서울과 인접해 있어, 나름의 도시 브랜드를 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기관이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도시 브랜드나 경쟁력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일본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도쿄와 요코하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 역시 도쿄와 인접해 있어, 도쿄로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미나토미라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쿄와 똑같이 요코하마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과 사람들은 도쿄 도심에 있기를 원했고, 요코하마까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은 서울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려하지 말고, 서울이 갖지 못하는 도시매력과 기능을 가지고 차별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에서 "세계 도시종합력"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이치가와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아시아 도시의 종합력을 통한 경쟁력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치가와 교수는 창조적인 사람과 기업을 세계로부터 끌어들이는 힘이 "도시의 종합력"이라고 정의하며, 아시아의 도시들은 경제성장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거주·환경' 및 '공간·접근성' 분야에서는 낮게 나타나, 창조력이 강조되는 종합력 평가에서는 하위에 머물러 있어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 대담 및 기록 ; 장 윤 정(동북아·물류연구실 책임연구원)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한창인 송도 신도시에서 9월24일 오후 송도파크호텔에서 '한·중·일 도시 경쟁력 제고 방안'이란 주제 아래 '제8회 한중일 심포지엄'이 인천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인천발전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동북아 환경수도 추진방안'
인천발전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어운덕)은 기타큐슈시립대학(학장 야다 토시후미)과 함께 "한일 친환경 모범도시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10월 23일 오후 2시 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공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일본지역 해외교류기관인 기타큐슈시립대학과 지난 2006년 체결한 연구교류 협정에 의거, 도시정책연구의 상호 벤치마킹과 연구성과의 심화를 위해 매년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친환경도시 육성을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과 최신사례가 집중 발표되었으며, 인천광역시와 기타큐슈의 관련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기타큐슈 측에서는 일본에서 요코하마와 더불어 환경모델도시로 선정된 기타큐슈 시의 '클린 프런티어 플랜'과 'ESD(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정책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었으며, 인천 측에서는 '생생도시 (EcoRich)'를 비롯한 국내 친환경도시 조성사업의 정책동향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자체 전략연구사업으로 수행 중인 "인천광역시 동북아 환경수도 추진방안"을 토대로 인천이 동북아 환경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추진 전략들이 제안됐다.

■ 인천광역시 도로교통 안전공모전입상자 시상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우리연구원은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관련하여 개최된바 있는 '국제도로교통박람회 및 국제학술대회'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도로과),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도로교통 안전공모전'을 개최로 협의했다. 지난 7월 10부터 8월 3일까지 공모를 실시해 응모작 중에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4학년 이기람군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이기람군은 '신개념 선택적 카풀시스템'을 제출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어운덕 원장으로부터 부상으로 상금 백 만원을 전달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 연구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 실시되었다. 우선 여성부에서 성매매예방교육을 위해 제작한 '성매매 여성, 내 누이의 다른 이름'이라는 주제의 동영상 시청하고,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으로부터 성산업의 실태와 강제성, 피해유형별 상담현황과 성매매방지법의 필요성,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과 관련법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안덕수 강화군수 초청 연찬회

우리 연구원(원장 어운덕)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대강당에서 제9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안덕수 강화군수를 초청해 강연 및 연찬회를 가졌다. 안덕수 강화군수는 강연에 앞서 강화군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물을 제시했다. 안 군수는 강화를 4 계절 휴양도시로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강화군의 자량으로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의 유구한 역사성,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환경 등을 꼽고, '2025년 20만명의 자족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 군수는 또한 아직 관광자원 개발이 미흡하고 등산로 정비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교통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하면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화 발전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군정 여건 초지니더오르 가솔니더 경계기니그려 기적 이천...가솔...게사기



기타 연구사업—중점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도로건설 등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광역도로 인프라 구축, 문화체육관광시설 확충, 선진 농어촌 건설 등을 들고 관련 설명을 해주었다.

안덕수 군수는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 미래를 담당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한 제안과 인식을 새롭게 정비해주기를 기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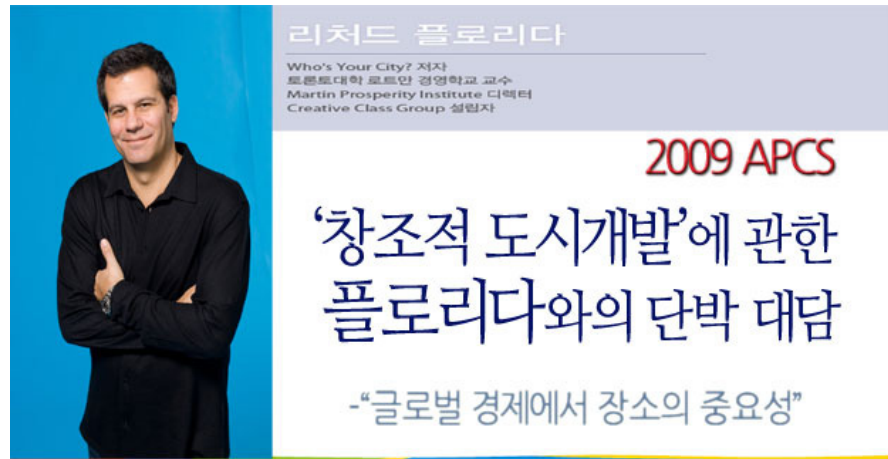
■ 2010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사업방향설정을 위한 전직원 워크숍

우리 연구원원장 어윤덕은 지난 15일 영종도 골든스카이리조트에서 2010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사업 방향설정을 위한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최현길 차장을 초청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인천발전연구원의 역할"을 주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최 차장은 FZ 비전 및 일반현황, Smart city 추진 배경 및 송도사이언스 발전지 조성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리스트 등 국내외 추진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2010년도 연구사업방향안과 연구실별 중점연구사업을 발표했다. 한편 오후에는 전직원들의 체력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해 영마루체육공원에서 체육행사를 하는 등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에는 말과노다지인사이드트렌드를 관람하고 도시축전장을 찾아 전공분야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어윤덕)은 기타큐슈시립대학(학장 야다 토시후미)과 함께 “한·일 친환경 모범도시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10월 23일 오후 2시 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공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일본 지역 해외교류기관인 기타큐슈시립대학과 지난 2006년 체결한 연구교류 협정에 의거, 도시정책연구의 상호 벤치마킹과 연구성과의 심화를 위해 매년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다.

2009 APCS '창조적 도시개발'에 관한 플로리다와의 단박 대담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교수 : 기초연설자

‘해안도시, 항구도시들은 21C형 발전을 주도 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어’

플로리다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도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 ‘장소의 질(Territorial quality)’이라는 4T를 제시하였다. 또한 20C 중반까지도 살구와 호두나무가 많은 농촌이었으나 미국의 100대 기업의 1/3이 모이게 된 실리콘 벨리의 변신 요인으로서 실리콘 벨리의 창업주 가운데 2/3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 지구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즉 남/녀, 다양한 피부색, 민족적 배경을 지닌 이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고 괴짜나 별종과 같은 사회적으로 쉽게 포용되지 않는 이들이라도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라면 사업하고 번영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적, 제도적 ‘관용’과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실리콘 벨리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실리콘 벨리에 전 세계의 ‘인재’와 ‘기술’이 모여들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창조적인 인재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곳에서도 여러 직업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가능한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므로, 인천도 그러한 도시로서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조언을 하였다.

1 '도시공간의 질'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으나 플로리다 교수는 좋은 장소의 (품)질(the quality of place)을 자주 언급하며 '장소(place)'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구성 단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왔음. 따라서 앞선 3T지수와 함께 추가된 T지수로서 제시하기 위해 'Territorial'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장소의 질'로 번역함.

Q. 몇 년 전 도시의 창조성을 체크하는 지수로서 3T(Talent, Technology Tolerance)를 제시하셨는데 이번에는 4T로 발전하셨더군요. 저는 2006년도에 교수님께서 3T지수가 높은 곳으로 분석된 미국의 도시들 중에서도 상위권 도시들을 추려 위치를 파악하고 어떤 분포의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 해안이나 5대호와 같은 거대 수변 지역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역시 서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의 해안 입지와 창조적 환경 간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으리라는 가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도 지도화(Mapping) 작업을 점점 중요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상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해안 도시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유동과 흐름이 있으며, 또한 비해안 도시들에 비해 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Q.저도 동참합니다. 당신의 저작들을 보면 지리적 환경(milieu)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타의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 인천과 같은 해안 도시들은 지리적 입지 그 자체로도 창조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안 도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형적, 생물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해안 도시보다 훨씬 풍부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게 e-mail을 보내주시면 더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 리처드 플로리다가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측면은 대 리셋 (great re-set)의 시대에 창조적 발전 성패의 결정적 중요성으로서 '지리적 조건'이다. 이것은 공동 기조연설자인 자고 아달리도 세계 경제의 변영과 파워의 변천을 지중해 연안 도시들에서 대서양 연안 도시로 이동하였으며 이제는 태평양에 연해 있는 항구도시들로 경제적 변영과 파워가 이동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역시 지리적 조건이

변화된 시대에 경쟁력을 창출하는 결정적 중요성이 된다는 점에서 플로리다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 마치 절대음감이나 색감을 타고난 사람이 탁월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지닌 것과 같이, 인천은 해안도시이자 항구도시로서 21C형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00년 전 인천은 한국의 근대문물 1번지, 국제도시, 다문화 기항도시로서 이미 번성하였었던 도시의 기억과 유산을 곳곳에 간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긍심도 높다.

-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부터 진정한 도시의 발전은 창조적인 인재들이 모여들어 그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여건과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고 가꾸어 내는데 달려있다는 플로리다의 주장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 인천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지리적 조건 및 잠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 새로운 도시 발전 동력으로서 요구되는 최고의 인재, 첨단 기술, 다양한 문화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은 천혜의 유리한 조건을 발판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들이 선호하고 모여들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들을 인천의 곳곳에 만들고 가꾸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대담 및 기록: 신 성 희(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

플로리다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도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 '장소의 질(Territorial quality)'이라는 4T를 제시하였음. 또한 20C 중반까지도 살구와 호두나무가 많은 농촌이었으나 미국의 100대 기업의 1/3이 모이게 된 실리콘 벨리의 변신 요인으로서 실리콘 벨리의 창업주 가운데 2/3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 지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10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생명이 솟구치는 섬-강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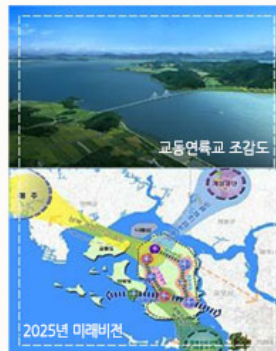
강화군



생명이 솟구치는 섬! 강화도

강화군은 한강하구에 위치한 유인도 9개와 무인도 17개로 이루어진 도서지역이며 면적은 411㎢로 인천시의 41%에 달하고 인구는 67천명으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다. 1970년 강화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처음 연결되었고 강화초지대교 개통(2002년)으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

강화군에는 단군이 천제를 지내시던 마니산 참성단과 보문사, 전등사와 같은 천년고찰이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 대동항쟁을 이끌었던 39년간의 고려수도, 외세침략을 막아내던 전적지 등 많은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로 인해 강화도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불리고 있다.



하지만, 강화군은 6-70년대 방직, 인삼, 화문석 등 특화산업의 번창으로 인구가 15만 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오랜 남북분단과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지금은 절반이하로 줄고 지역발전도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강화군은 최근 2025년 20만명의 상주하는 녹색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목표로 더 큰 발전을 위해 힘찬 날개를 펼쳐나가고 있다. 교동연륙교와 삼산연륙교 건설, 세계최대규모의 조력발전소, 산업단지 조성, 삼산보양온천단지 조성, 고려문화유적 정비, 강화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인천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힘차고 활기가 넘치는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가슴이 뻐근 곳, 서도면



강화에는 3개의 도서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도면은 주문도, 아차도, 불음도, 말도 등 4개의 주요 섬에 700여명이 농어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하루에 2차례정도 배가 운항하고 있어 사람의 손때가 가장 덜 묻은 곳이다.

이 곳에 가면 다양한 볼거리와 맛도 즐길 수 있다. 우선, 불음도에는 천연기념물 304호로 지정된 강화 서도면 은행나무가 있는데 800여년 전 수해가 심할 때 떠내려 온 것을 이곳에 심은 것이 성장하여 오늘에 이른다고 한다. 매년 1월 30일이면 동네 주민들의 모여 안녕과 풍어를 비는 풍어제를 지냈지만 남북분단 이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주문도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명물이 하나 있는데, 거의 100여년을 자랑하는 서도중앙교회가 그것이다. 서도면에는 4개의 유인도에 교회가 5곳이나 있을 만큼 주민 모두가 절실한 기독교인사이다. 이 중 1997년도 인천신문화재 14호로 지정된 서도중앙교회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통 목조건물 형식을 띄고 있고 있으며 일요일 새벽 예배에만 활용되고 있다. 특히나 주문도 봉구산(147m)에 올라 섬 주변을 둘러보면 너른 갯벌과 시원한 바람, 고즈넉한 시골모습에 탄성이 절로 난다. 이 밖에도 옛날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대빈창과 불음도의

조개굴 해수욕장은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북녘의 땅이 손에 잡힐 듯, 강화평화전망대

인천지역 최북단 강화군 양사면에 위치한 강화평화전망대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지역을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지난해 9월 개장했다.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는 1.8km에 불과해 큰소리로 부르면 들릴 것 같이 가까이에 있어 북한주민들의 일상 생활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전망하기 힘든 북한의 독특한 문화생태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또 이곳은 6.25동란시인 1.4 후퇴 당시 황해도 연백 피난민들이 정들었던 고향땅인 연백평야를 뒤로하고 작은 목선에 목숨을 의지하며 월남했던 한이 서린 장소로 지금도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예성강, 임진강, 한강 물줄기의 모습을 보기위해 많은 실향민들이 찾고 있다. 특히 평화전망대 1층에는 강화특산품과 북한특산품을 판매하는 특산품 판매장과 식당, 통일염원소가 있고 2층에는 옥외 전망대와 전시관이 있어 전쟁의 참상과 흔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 1년간 22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또한 강화의 국방 체험과 남, 북한의 군사력 비교, 끝나지 않는 전쟁, 우리는 한민족, 통일로 가는 길, 한국전쟁 당시의 배경과 국내, 외 전쟁 발발과정 및 그 이후 잊지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상황 등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는 영상 룸도 마련돼 있다. 3층에는 이북의 온 산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 등 전망시설과 흐린 날씨에도 영상을 통해 북한 전경을 볼 수 있는 스크린 시설이 마련돼 있다. 관람시간은 하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보약같은 강화농특산물, 강화마니



강화군 농특수산물 공동브랜드



강화에 가면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보약 같은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 기름지고 오염되지 않은 비옥한 토지와 깨끗한 농업용수, 그리고 일조량이 길고 일교차가 커서 밥맛과 영양이 뛰어나 "강화섬쌀"을 비롯해 고려인삼의 전통과 맥을 이어온 "강화인삼",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세계가 주목하는 "강화사자발약썩", 동의보감에도 기록되고 강화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강화순무", 달고 맛이 있고 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는 "강화속노랑고구마", 강화사자발약썩을 먹고 자란 "강화섬한우", 짜지 않아 맛과 영양가가 높은 "강화도새우젓", 풍부한 영양으로 건강을 지킬 "강화갯벌장어" 등 우리 몸에 활력소가 되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된다. 최근 강화군은 타 지역과의 차별화하는 고품격의 농산물만을 엄선하고 농어업을 고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화마니"라는 농특수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다.

민족의 역사, 마니산 참성단

마니산 참성단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곳이라 전한다. 깎아 지른 듯한 절벽위에 자연적으로 쌓아 만들어 흡사 군사요새와도 같다. 참성단은 자연적으로 아랫단은 둥글게, 상단은 네모반듯하게 쌓은 것으로 우리 선조들의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천지관이 반영되어 있다. 고려 원종 11년(1270)에 보수하였으며 조선 인조 17년(1639)에 수축하였고 숙종 26년(1700)에도 보수하였다.



지금도 해마다 개천절이면 이곳에서 단군에게 제를 올리는 개천대제가 개최되고 전국체전의 성화가 칠선녀에 의해 채화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민족의 성지로 알려진 이곳 마니산은 산세가 수려해서 등산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에서 가장 기(?)가 센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강화군은 한강하구에 위치한 유인도 9개와 무인도 17개로 이루어진 도서지역이며 면적은 411km²로 인천시의 41%에 달하고 인구는 67천명으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다. 1970년 강화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처음 연결되었고 강화초지대교 개통(2002년)으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 강화군에는 단군이 천제를 지내시던 마니산 참성단과 보문사, 전등사와 같은 천년고찰이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 대동항쟁을 이끌었던 39년간의 고려수도, 외세침략을 막아내던 전적지 등 많은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로 인해 강화도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불리고 있다.

Interview Conference

IEEE ISCIT 2009 국제학술대회 참관기

국제학술대회인 IEEE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 & Information Technology(ISCIT 2009, 정보통신기술 국제심포지엄)가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기간인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ISCIT는 금년이 9 번째로 중국, 일본, 태국, 호주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작년의 라오스에 이어 인천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이다. 중국, 일본, 태국, 미국, 이란 등 총 37개국 938명이 500여편의 논문을 제출하였고, 이들 중 최종심의를 거쳐 채택된 334편의 일반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계와 산업현장의 석학들이 IT분야의 최신 동향을 발표하는 특별세션에서는 35개의 강의를 3일 내내 진행되었고, 7개의 초청강연, 1개의 기조강연을 포함하여 총 43개의 강연이 일반논문 발표와 병행되었다.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는 미국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의 공학분야 전문가 조직으로 IT분야의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회이다. 해외인사들의 초청강연으로 구성되는 도시축전의 다른 행사와 달리 IEEE와 관련된 IT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및 학생들이 자신들의 논문을 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다른 어떤 행사보다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행사장을 찾아보았다.

첫날 개회식은 예상대로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 등록 데스크가 일대 혼란을 이루었다. 이후 진행된 개회식은 송도컨벤시아의 프리미어 볼룸 280석을 이미 다 채우고, 일부 늦게 참석한 방문자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하는 모습이 간혹 눈에 띄었다. 인천 u-City 포럼의 수석부회장인 인하대 광경섭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인천시장과 통신학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뒤를 이은 기조연설로 마무리 되었다. 개회식 직전에는 인천시 홍보 동영상 상영되는 등 1시간 남짓의 개회식이지만 인천시에 대해 충분히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해외 방문객들은 행사 내내 관심어린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개회식이 끝나고 난 후 점심시간에는 휴전시의 도시락이 제공되었는데 도시락을 모두 나눠주고도 모자라 1층 내부 식당을 활용하였다. 일부 외국인들이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식당에 모여 웅기중기 한식을 먹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날 저녁에는 벅킷이 개최되어 ISCIT의 주요인사, 초청강연자들이 소개되었고, 우수논문 시상식과 함께 차기년도 행사 주최국인 일본의 홍보자로 영상이 소개되었다. 특히 인천시립무용단의 공연은 외국인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고온 한복과 징과 장고가 어우러진 전통 무용은 많은 외국인들의 경이로 찬 눈길과 함께 우뢰와 같은 박수와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신문사의 기자들도 많이 참석해서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만찬시간 후 잠시 틈을 내어 행사 사무국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여학생을 인터뷰하였다.



윤영진

Q. 첫날의 개회식과 오전의 초청강연은 참여하셨나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행사내용이 도움이 되었는지요?

첫날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등록하는데 힘들었어요. 초청강연은 전공분야의 미래동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특히 개회식때 라오 교수의 미래사회에 대한 기조연설은 정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학술대회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송도 컨벤시아의 시설도 좋고 다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인지 점심용으로 준비된 도시락도 부족하고 첫날 등록데스크는 너무 붐벼 주최 측에서도 고생하셨겠지만 등록하는 사람들도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저녁 벅킷 만찬장에서는 자리가 모자라 한참 기다려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추가로 테이블을 셋팅해

주더라고요. 식사와 공연은 정말 좋았어요. 특히 인천시립무용단의 공연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과 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다음 날은 학술행사의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비해서는 다소 한산해 보이는 듯하였다. 여느 때처럼 오전의 초청강연이 끝나고 일반논문 발표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시 행사 사무국을 둘러 행사를 주최한 인천 u-City 포럼의 수석부회장인 곽경섭 인하대 교수와 사무국 간사인 진선희씨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곽 경 섭

Q. 오늘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가 봅니다. 오늘이 행사 마지막 날인데 행사의 성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행사준비를 시작한 작년 12월에서 올해 3월까지의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호주, 일본 등에서 열릴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준비를 하려니 막막하기도 했어요. 사실 1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실질적인 준비는 올해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치고는 준비가 많이 늦었지요. 초창기에는 접수된 논문이 채 200여편이 안될 정도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천 u-City 포럼의 회원사, 한국통신학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3일간의 행사를 보셔서 짐작하시겠지만, 대단한 성공작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행사를 후원해준 (주)APS사와 (주)KT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미국의 유명 IT분야 연구소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전도 성사되어 보람이 큼니다.



진 선희

Q. 다른 행사에 비해 학술대회로서는 특별세션 강연과 초청강연이 많은 편인데, 행사진행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네. 실제 논문발표자와 함께 특별세션과 초청강연을 듣기 위해 방문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행사 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모든 것을 진행한데다, 도우미들도 대부분 행사진행 경험이 전혀 없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충당하다 보니, 첫날과 둘째날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어요. 강연실의 빔 프로젝트가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개회식의 중계방송 화면이 전환되지 않는 등 컨벤시아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지만, 별의별 문제들이 다 발생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이번 행사를 경험삼아 역할 분담을 잘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우리는 자리를 뜨기 위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전체 진행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으나, 인천에서는 최초로 치러진 IT분야의 IEEE 국제행사라는 점과 약 55% 이상의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인천시의 세계도시축전과 IT산업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의미 있는 행사임에 틀림없었다. 행사가 진행된 3일내내 행사장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꼈던 필자는 국제도시의 한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몽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컨벤시아를 빠져 나왔다.

□ 대담 및 기록: 정 지 원(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국제학술대회인 IEEE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Information Technology(ISCIT 2009, 정보·통신기술 국제심포지움)가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기간인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ISCIT는 금년이 9번째로 중국, 일본, 태국, 호주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작년의 라오스에 이어 인천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이다. 중국, 일본, 태국, 미국, 이란 등 총 37개국 938명이 500여편의 논문을 제출하였고, 이들 중 최종심의를 거쳐 채택된 334편의 일반논문이 발표되었다.

Interview Conference

제1회 교통 명품도시를 위한 국제 자전거 심포지엄

'인천시는 제1회 자전거 엑스포 개최와 더불어 국내외의 자전거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통 명품도시를 위한 국제 자전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소극장에서 2009년 9월 23-24일 이틀간 진행된 심포지엄 중 해외 전문가의 주요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실었다. 또한 일부 발표자와 간단한 Mini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 유럽 자전거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유럽 자전거이용에 관한 정책, 문제점, 시사점의 비교분석

: 만드레드 노인(Manfred Neun)



유럽자전거연맹(European Cyclists Federation: ECF) 회장이다. 유럽자전거연맹은 전 유럽의 총괄조직으로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남아프리카를 준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자전거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녹색정책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의 자전거정책은 전 유럽을 아우르는 자전거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책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유럽 각 도시간에 자전거 이용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 최근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한 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자전거연맹(ECF)의 주요 목표는 회원국간의 자전거 정책과 관련된 노하우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매년 Velo-City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자전거 활성화는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주요 과제로서 선진국(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을 비롯한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의 평균자전거 이용율이 5%인데 반해 네덜란드는 27%의 자전거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Velo-City 컨퍼런스에서 채택한 브뤼셀 헌장을 보면 2020년 까지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15%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럽자전거연맹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전거이용을 강력히 권장, 자전거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많은 국가간 노력 확대, 자전거를 더 나은 경제성 평가를 통해 교통수단의 일부로 인정, 지속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전거 재정확립, 국제적 자전거 전문지식의 확산 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자전거의 역할, 영국의 현재 추세와 2030년도의 비전

: 마일즈 타이트(Miles Tight)

- 영국리즈대학교 교수



영국내 자전거의 역할, 현황 및 비전 2030에 대해 발표한 영국리즈대학 마일즈 타이트 교수는 지난 20년간 영국의 자전거, 보행자, 교통안전 및 지속가능한 교통과 관련하여 영국 및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특히 2008년(2011년)부터 영국 자전거 및 보행자를 위한 교통정책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국책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영국의 자전거 및 보행자 정책과 관련하여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영국의 자전거정책 2030비전을 도심지역에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수단으로써 보행과 자전거 이용에



을 강조하였다. 또한 걷기와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일관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MINI INTERVIEW

Q.영국의 자전거활성화정책의 경험에 비춰볼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기 보다는 작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고르다면 정부의 정책적인 면일 것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미디어 등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많은 것을 할 것처럼 발표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전거에 아직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권자가 자전거에 관련해서 립서비스(lip-service)만 남발하는 경향이 있죠. 다시 말해 정부나 정책결정권자가 진심으로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인천과 같이 새로운 자전거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를 위해 조언을 한다면?

앞의 답변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자전거를 위해 자동차만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같은 투자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위한 도로와 주차장은 잘 보이지 않더군요. 이용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회성 정책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의 자전거 정책의 역사와 최근 이슈

테츠로 히도(Tetsuro Hyodo) - 동경해양과학기술대학 교수



일본의 자전거정책 역사와 제도개선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일본 동경해양과학기술대학의 테츠로 히도 교수는 교통수요예측 및 자전거통행 개인행동패턴 모형과 관련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자전거 노선선정, 주차문제 및 자전거 교통표준화 사업 등 다양한 자전거교통관련 사업에서 핵심자문역할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자전거 정책은 1970년대부터 활성화되었고, 1980년대 도심근교 역세권주변에 자전거 이용이 집중되었고, 자전거 불법주차가 지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1980년대 자전거와 보행자간의 교통사고가 급증하였다.

최근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1970년대부터 시행된 보차겸용 자전거도로정책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08년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새로

운 자전거도로 구축 및 국토개발과 관련된 98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보도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도로교통법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MINI INTERVIEW

Q.한국의 경우, 과거 자전거이용인구가 많았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이용이 대폭 감소하는 등 침체기에 들어갔는데, 이는 일본도 동일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한국보다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의 이용인구가 증가하였지만,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정비나 관련 법제도정비 등에도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197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왔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의 자전거 통행우선과 관련된 도로교통법개정 등으로 자전거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독일자전거협회와 민간단체 및 기업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노베르트 산덴(Nobert Sanden)



독일 자전거협회(ADFC) 헤센주 회장으로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에서 지리학, 사회학 및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1995년부터 독일자전거협회 주요 요직을 수행중에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을 증가시키는데 막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Bike & Business(자전거연계사업모델) 및 Bike & Bed(자전거연계숙박)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법을 개발하여 독일에 보급하고



있다. 독일은 인구 8천2백만명에 자전거는 7천만대로 지난 30년간 10%의 안정적인 수단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잠재력 크나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독일자전거협회는 비정부기구로 1979년에 설립되었고 다양한 교통정책 및 프로젝트활동을 통해 자전거관련 교통정책에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bike+business를 라인·마인지역 75개 도시중 16개 기업 및 행정 부처와 11개 도시에서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5단계실행모듈을 소개하였다. 최근에 추진중인 Bike+business 2.0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10km이상의 도시외곽지역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모델을 추진중이다.

■ 자전거 이용에 따른 잠재 편익측정 - 미국 자전거 활성화 전략의 평가 및 시사점 : 케빈 크리젝(Kevin Krizek)



미국 자전거 활성화 정책 및 기대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콜로라도대학의 케빈 크리젝 교수는 활동적 지역사회및 교통연구협회(Active Community, Transportation Research Group)의 회장으로서 최근 미국 내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행 및 자전거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는 미국내 몇 안 되는 자전거 전문가이다. 특히 2004년부터 미국 교통부의 국책사업인 자전거 및 보행관련 시범도시 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관련 연구를 본격화 하였고, 자전거 비용편의 산출에 대한 연구 및 공중보건과 관련된 미국내 각종 자전거관련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통 및 토지이용학회(Journal of Transport and Land Use)학회의 편집자로 등재되어 자전거 및 보행연구와 관련된 양성한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의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의 환경적, 경제적 이익의 가능성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크리젝 교수는 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만으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입안자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의 비용편익분석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크리젝교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따른 편익으로 시간절약효과, 생활환경개선효과, 환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 연구사례를 통해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 프랑스 지자체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 장찰스 푸티퍽시어(Jean-Charles POUTCHY-TIXIER)



프랑스 에너지환경부 소속 자전거정책팀 소속 공무원으로 프랑스 환경부, 교통부 등의 주요요직을 역임하고, 현재 프랑스 자전거정책의 기본골격을 수립하는 등 중앙정부내 자전거 정책의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프랑스정부는 자전거 정책을 발전시켜왔으며 도시 내에 정비되는 도로나 신설되는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구축하는 법안이 환경법에 추가되었다.

2006년 정부는 도로법을 개정하기로 결정, 2008년 처음으로 시행된 법안은 주요 교차지점지정, 주요 교차지점에서의 체계적인 자전거도로 확장 정책, 안전운전 원칙과 도로교통의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자전거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도로와 녹색도로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자전거 교통분담을 증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시민들이 보다 더 자주, 안전하게, 그리고 더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 리옹시의 Velo'v 시스템과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 게롬 슬리마니(Keroum Slimani)

- 프랑스 리옹시 자전거팀 공무원



프랑스 리옹시의 자전거프로젝트팀 소속 공무원으로 리옹시 공공자전거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5년 리옹시에서는 벨로브(Velo'v)라는 새로운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였다. 현재 이로 인해 도시의 분위기와 경관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벨로브 프로젝트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착수되기까지의 전과정이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시행기간 후에 벨로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업에 따른 성과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옹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과 기반시설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2009 도심 자전거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의회에 의해 그 시행이 승인되었다. 자전거 교통분담을 증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시민들이 보다 더 자주, 안전하게, 그리고 더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MINI INTERVIEW



Q. 리옹시의 공공자전거(Public Bike)시스템의 운영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자전거 2,000~4,000대 운영 중이며, 자전거 거치대 최고 6,6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5시부터 22시까지이며, 동절기 및 하절기마다 운영시간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 권혁철(국제자전거 심포지엄 운영위원회 위원장)

mini interview



Q. 금번 심포지엄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한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행사를 추진하다보니 그에 따른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충분히 홍보를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특히 원거리의 지자체)의 자전거 담당자들께서 참석해주신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연사님들의 발표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2030년에 자전거와 보행은 독일의 Bike & Business, 미국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등등입니다.

Q. 이번이 제1회 심포지엄인데 향후 심포지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럽 자전거 연맹(European Cyclist Federation) 총재 Manfred Neun씨와 협의 했습니다만 ECF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인 유로벨로 컨퍼런스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자전거 국제회의 및 Expo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이연창(인천광역시 도로과장)



Q. 금번 심포지엄에서 해외 자전거도로정책 추진사례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발표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각국의 자전거 전문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뻛고 앞으로 인천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독일의 bike&business프로젝트에 관련된 발표내용이 인상깊었습니다. 현재 인천시도 자전거인센티브제 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독일은 잘 알려진 대기업등이 11개 도시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bike&business프로젝트참여기업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는 그 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는 언론 홍보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에 호의적인 시민의식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은 정책을 통해 인천시 자전거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대담 및 기록 : 한 중 학(도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인천시는 제1회 자전거 엑스포 개최와 더불어 국내외 자전거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통 명품도시를 위한 국제 자전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소극장에서 2009년 9월 23일~24일 2일동안 진행되었던 심포지엄의 해외 전문가의 주요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실었다. 또한 일부 발표자와 간단한 Mini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Interview FOREIGN VISITORS

외국인 관광객

“ 인천세계도시축전, 그 80일간의 화려한 축제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행사장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어 있었다.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에, 미처 축전장을 찾지 못했던 이들과 마지막 축제 열기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가운데
억만송이 국화들의 노란 물결이 방문객들을 반겨 맞아주고,
가을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으며,
미추홀 분수의 힘찬 물줄기는 행사장에 생기를 더해주고 있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장을 찾아 다양한 축제의 장을 만끽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나 인터뷰를 청해보았다.



연세대 한국어학당 학생 Marc 외 (미국)



Q.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했습니다.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야외수업으로 축전장을 찾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Q. 인천세계도시축전장에서 제일 흥미로운 곳은 어디였으며, 혹시 불만사항은 없었나요?

로봇전시관과 애니메이션을 상영한 아트영상관, 미래 생활모습을 가상체험할 수 있었던 투모로우시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볼거리가 많은데 너무 넓어서 오늘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야외수업을 한 번 더 와야 제대로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네요.(웃음) 불만거리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Q.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곳 행사장에서 점심을 먹었나요? 먹거리들은 어땠나요?

아침부터 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심도 축전장에서 먹었습니다. 불고기뭇밥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밖에 다른 한국음식도 다 잘먹고 좋아하기 때문에 해질 때까지 머물면서 세계문화의 거리에 있는 맥주바에서 맥주도 마시고, 다른 나라의 특색있는 음식도 먹어볼 생각입니다. 노을광장에서 볼 수 있는 일몰도 감상하고 가야 겠죠?



유학생 Alex (오스트레일리아)



Q. 인천세계도시축전장을 돌아본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 로봇사이언스 전시관이 기억에 남네요. 오늘은 작정하고 놀러 온 거라 시간을 갖고 천천히 구경고 갈 생각입니다.



Q. 인천세계도시축전장을 찾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인천에 사는 학교 친구네 집에 놀러왔다가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별 기대없이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날씨도 좋고, 볼거리도 많아서, 기회가 되면 외국인 친구들과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아강사 Alexandra (캐나다)



Q. 인천세계도시축전장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곳은?
 가을이라 그런지 만개한 '억만송이 국화축제'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국화로 동물 모형 장식도 하고 갖가지 다양한 모형을 만들어 놓아서 지루하지 않고, 여유롭게 산책하듯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 인천은 처음 방문이신가요? 인천세계도시축전장은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여주에서 영아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인천에는 친구들이 있어서 가끔 오는 편입니다. 도시축전도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시개발계획에 관심이 많아서 도시계획관에 가서 조감도도 보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Q. 지금 막 관람을 마치고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베트남 워터퍼펫(수상인형극) 공연을 보고 나왔습니다. 해설자의 설명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좀 불편했지만 물속에서 벌어지는 인형들의 공연만 보고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박수를 보내주고, 호응을 잘해서 더 재미있었습니다.

□ 대담&기록 : 장순지(시정연구협력센터)

인천세계도시축전, 그 80일간의 화려한 축제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행사장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어 있었다.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에, 미처 축전장을 찾지 못했던 이들과 마지막 축제 열기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억만송이 국화들의 노란 물결이 방문객들을 반겨 맞아주었으며 가을하늘은 눈부시게 푸르고, 미추홀 분수의 힘찬 물줄기는 행사장에 생기를 더해주고 있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장을 찾아 다양한 축제의 장을 만끽하고 있는 외국인 관람객들을 만나 인터뷰를 청해보았다.